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7. 5. 16 ~ 2017. 5. 21

출장지: 프랑스

출장자: 김동한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2017. 5. 16 ~ 5. 21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동한	

4. 출장목적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참석 및 정부대표단 활동지원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토연구원의 위상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 도모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5월16일(화)	인천		(20:00) 인천 출발
5월17일(수)		파리	(06:40) 파리 도착
5월17일(수)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참석 - 제32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 제21차 도시정책작업반 회의 (09:30-18:00)
5월18일(목)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참석 - 제37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09:30-18:00)
5월19일(금)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참석 - 제37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09:30-18:00)
5월20일(토)	파리		(19:50) 파리 출발
5월21일(일)		인천	(13:50) 인천 도착

제36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및 산하작업반 회의 주요내용

I 제32차 지역지표작업반

1. 이주민원주민 커뮤니티와 지역적 발전

- 지역에서의 이주민 통합과 관련 OECD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분석한 지역내 이주민의 존재 여부특성 및 통합 결과에 대해 예비 평가
- 이주민의 존재와 다양한 통합방식, 그리고 이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하는 지 등에 대해 특정 패턴 제시(이주민은 다른 원주민보다 도시내에서 공간적으로 집중하여 거주하는 경향. 다만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주민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원주민과 같은 지역에 거주 등)

2. 도시 내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

- 하나의 도시 내에서 소득(income), 부(wealth), 이주민의 특성 교육수준 등에 따라 거주지의 분리현상이 어떠한 경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segregation)
- OECD 국가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1) 지니계수

- 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척도가 높을수록 2) 소득이 높을수록 분리 정도(segregation level)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최근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주민의 교육수준 민족 특성 등에 따라 분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미국의 경우 이주민의 부(wealth)의 수준과 각 주의 지역정책이 공간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회원국은 소득(income)과 부(wealth)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서로 연관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공간 분리를 통해 거주자들 간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3. 지역기업 역동성에 대한 측정

- 기업의 고용투자 등 활동이 지역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 수도권이 반드시 기업입지에 있어 매력적인 것은 아니나 대체로 지방보다는 도시에 기업들이 입지. 오래된 기업보다는 새로운 기업(young units)·연구개발(R&D)이 활발한 기업에서 고용 창출 비중이 큰 경향
- OECD 사무국은 관광, 환경, 기업육성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기반적(space-based)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간기반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OECD 회원국들은 공간기반적 정책 접근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했으며, 덴마크는 이에 대해 공간기반적 정책 접근

을 위해서는 상향식과 하향식(Bottom-up) (Top-down) 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4.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데이터 수요와 측정 틀 구축

- 지역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권 또는 지역수준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설정도시와 지역간 데이터 격차 해소 등에 대해 설명이에 대해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등 각 회원국 논의
- OECD 물 거버넌스 지표 방법론
 - RDPC는 WGI(Water Governance Initiative)에서 지난 2년간 상향식 및 다자간 프로세스를 거쳐 3개 분야(효과성, 효율성, 참여 및 신뢰성)에 걸쳐 12개의 물 거버넌스 원칙을 승인('15. 6. 3. 각료회의에서 34개 OECD 장관이 승인)
 - 이러한 물 거버넌스 실행을 위한 지표 수립을 위해 지표분야(정적 및 동적 평가), 형식(투입, 과정, 산출지표), 범위(물 거버넌스와 관련한 다양한 규모의 역동성 반영), 수집절차(관심 있는 국가 및 도시의 자발적 참여)등에 대해 논의

1. 각국의 국가도시정책(NUP) 현황 및 제2차 NUP 컨퍼런스 결과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헝가리, 터키, 스웨덴, 일본 등 각국의 NUP 이행 현황 등 새로운 도시 이슈에 대하여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각국은 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NUP 이행과 적절한 주거 및 재정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 특히 슬로바키아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
- 우리나라는 NUP 이행 현황과 관련하여 국가 주도로 주민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함.
- OECD는 UN Habitat와 공동주관한 제2차 NUP 컨퍼런스와 관련하여 대륙별 라운드테이블 진행을 통해 도시정책에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맥락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설명.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한 동 컨퍼런스를 Habitat III 이후의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향후 논의 프로그램('17~'19)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어떻게 운용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 제2차 NUP 컨퍼런스 결과 보고에 대해 덴마크는 도시에 대한 논의는 지역에 관한 논의와 통합되어 이뤄져야 한다고 발

언하였으며 캐나다, 영국 등도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함. 이에 대해 OECD는 다양한 그룹을 통하여 도시와 도시 주변 영역의 시너지 창출, 상호 연계 등에 관하여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

2. 도시정책과 지속가능발전

-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도시정책의 역할이라는 맥락에서 국가 도시 정책과 교통정책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통합과 분리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
 - 사무국에서 저탄소 NUP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①규제, ②재정, ③정부혁신, ④정보제공 및 역량 구축을 지적하고, 접근 방법으로서 ①기준 정립, ②유인 제공, ③ 지방정부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3C(Compact, Connected, Coordinated)를 중심으로 각국 사례를 분석
 - 연구 결과 ①주택 공급이 주요 정책목적인 경우 정책통합은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예: 중국,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②주거의 질이 정책목적일 때 주택은 인프라, 서비스, 고용 등과 연계되며(예: 콜롬비아, 인도, 미국), ③주거가 도시 발전의 틀에서 추진될 때 3C를 추구하는 발전 모델이 가능(예: 남아프리카, 독일, 멕시코, 캘리포니아)함을 분석
- 압축도시의 비용과 편익에 관해 분석한 결과 ①압축도시는 생산성, 혁신, 공간가치, 직업 접근성, 서비스, 도시 어메니티 등 거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②교통 혼잡, 주관적인 웰빙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과밀화로 주거비용이 상승하여 압축 도시 개발시 저렴한 적정 주거를 공급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함

- 각국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국의 주거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주택공급만을 벗어나 도시 전체의 틀에서 각 부문별 정책을 통합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함.

3. 대도시에서의 토지이용정책 거버넌스

- 사무국은 대도시 지역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암스테르담, 프라하, 카사블랑카 등 각 도시 사례(현황 및 문제점, 정책제언)를 발표하고 각 도시 대표단이 자국의 도시 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이후 각국 대표단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
- 암스테르담과 프라하는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과 개발 압력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여행객의 증가와 외곽에서의 통근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었음.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암스테르담에 용적률 보너스, 도로혼잡비용 부과 등의 수단을 제안함. 또한 투명성 강화와 시민 참여의 확대 상호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메트로폴리탄 거버넌스 능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프라하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공간 계획을 증진시킬 것과 개발에 관한 규제를 개혁할 것, 정부가 재정적 인센티브나 규제 프

레임워크를 마련할 것, 시민들의 참여 기능 강화와 협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할 것 등을 제안함

4. 대도시 지역의 거버넌스

- 카사블랑카는 모로코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도시화 압력을 받는 도시로서 구시가와 신시가의 발전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라고 지적함. 빠른 인구 성장과 비교적 젊은 인구는 강점이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산성, 지역적 불평등, 혼잡한 교통, 나쁜 대기질은 극복해야할 요소임. 카사블랑카에 대해서는 도시 전체 차원의 교통 전략을 마련할 것, 수직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 도시와 농촌 지역의 보완성을 증진시킬 것, NUP의 수립을 고려할 것 등이 제안됨

5. 향후 논의

- 사무국은 이민자 문제와 관련하여 EU의 후원으로 이민자들의 분포 및 생활 수준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방면에 걸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고함. 우선적으로 암스테르담, 브뤼셀, 비엔나 등 유럽 9개 도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
- 터키는 난민 문제에 대하여 터키 정부의 식량 및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것이 도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발언. 현재 자선이나 국가 재정 등에 의존하

고 있으나 국제기구의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희망함.

- 도시 복원력 지표와 관련하여 각 지표를 어떤 비중으로 고려할 것인지, 지표 간 통합의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1. 오프닝 세션

- 지난 회기까지 의장직을 수행하였던 Mr. Paul LeBlac(캐나다) 퇴임에 따라 부의장인 Ms. Marie-Chantal Girad(캐나다)가 의장대행직을 수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제36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결과에 대해 요약보고하고 제37차 주요안건에 대해 회원국의 토론 및 승인 절차를 진행
- OECD 사무국의 조직개편에 따라 RDPC의 소속국이 변경됨을 설명(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 Entrepreneurship, SMEs, Local Development and Tourism)
 - 사무국에서는 RDPC의 고유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덴마크 등 일부 회원국은 기존의 장소기반정책(place based policy)에서 부문정책(sectoral policy)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의견 피력
- 도시정책작업반, 지역지표작업반, 농촌작업반 등 각 작업반의 주요 활동내용을 요약 소개하고 RDPC의 3대 추진분야 및 추진방향(지역의 생산성 동향, 포용적 도시와 지역, 분권화 및 다계층 거버넌스 등) 소개
- 2018년에 실시할 RDPC 활동에 대한 내부감사 및 평가의 주요내용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및 절차 (In-Depth Evaluation by council)를 소개

2. 지역개발정책 : 세계화에 대한 대응

- 2017 OECD 각료회의(MCM)에 대한 지역정책적 접근방안 논의: 최근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각료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 예정이며, RDPC에서는 장소기반의 지역정책적 관점에서 세계화 문제에 대한 방향을 논의
- 특히 개방 경제와 디지털 경제시대에 도시와 지역정책의 역할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이 세계화의 추진을 지지하였으며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유

3. 중앙-지방정부간 거버넌스와 분권화

- 이 세션에서는 RDPC의 3대 업무추진분야 중 하나인 다계층 거버넌스와 분권화 방안 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분권화와 지역개편의 실천을 위한 방안과 사례 등에 대해 논의
-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칠레의 지역검토보고서(칠레의 분권화 어젠다: 지자체의 역량강화)에 대해 발표하고 회원국의

의견 수렴 진행(칠레는 보고서의 의미와 유용성 등에 대해 언급, 프랑스는 자국의 경험 등을 제시)

- 아울러 정부 계층간 역할 분담(OECD 경제설문조사 및 지역 검토 보고서로부터의 시사점)과 정부간 효과적 공공투자에 관한 OECD 권고안 집행을 위한 도구와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 진행
 - 특히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2014년 채택된 정부간 효과적 공공투자를 위한 권고안 의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과 수단 등을 소개하고 정부간 공공투자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개발한 12개 지표와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평균적 측정결과 등을 설명

4. 지역과 도시에서의 포용성장

- 이 세션에서는 RDPC의 3대 업무추진분야 중 하나인 포용적 도시와 지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도시와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추진중인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
- 특히 이주민 통합을 위한 지역적 접근과 관련 OECD와 EU는 공동으로 이주민 통합에 대한 지역적 접근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기초 데이터 및 지표의 설계를 마치고 유럽지역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례연구 수행)이며 이에 대한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 포용적 성장에 대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농촌 지역의 도

전과제, 토지이용 거버넌스, 소득에 따른 공간적 분리 등에 대해 논의

5. 지역발전의 이론과 실제

- 공공투자 기반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OECD와 EU가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세미나(지역경제개발을 위한 다계층 경제개발, 공공투자 성과에 대한 인센티 부여, 보다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위한 전제조건, 행동과학과 조직 행태 등)에 관해 소개

6. 기타 사항

- 향후 주요행사 일정 등에 대해 소개: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 관한 회의(7월과 9월 개최 예정), 제38차 RDPC 및 산하작업반 회의(12. 4-8 개최 예정)